

5월 2주차 Q&A — 미 재무부 유동성 공급의 한계 & 1,460원대 환율 대응법

2026-05-11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qna_part4_04

Q&A 5월 2주차 (2026-05-11, parent: Part 4-4강). 큰옥돌님 3 질문 — 베센트 유동성 ·TGA 잔고·환율. 베센트 8개월 탄약 → 이란 전쟁 6개월 압축 + TGA 9,750억\$ → 6,800억\$ 살포 + 연준 협공 3,000억\$ + 4월 +10·15% 폭등 + 인플레이 2 충격 + 11/3 산수 부족분 + 환율 1년 평균 + 매달 분할 + 닛(SGOV) + 돛(AI·원자재) 예고.

01 핵심 골격

- 1 베센트 선거 전략 — 가을 TGA 채우기(주가↓) → 5~10월 풀기(주가↑) → 11/3 트럼프 승리. 2개월 전 강사 유튜브 "나스닥은 미끼" 예측.
- 2 TGA 사실 확인 — 2025-07~08 2,700억\$ → 2025-11 정점 9,750억\$ → 2026-04 초 6,800억\$ (4,000조 원 살포). 원래 5월 살포인데 두 달 당김 (이란 전쟁).
- 3 이란 전쟁 게임 체인저 — 2026-02-28 시작, Brent 73→126\$ (4년 최고). 8개월 탄약 → 6개월 압축.
- 4 연준 협공 (12~4월) — 단기 국채 400억\$/월 + MBS 재투자 150~200억\$/월. 5개월 누적 3,000억\$.
- 5 합산 7,000억\$ 유동성 살포 (글로벌 금융위기 1차 QE 1조\$에 근접) — TGA 4,000억\$ + 연준 3,000억\$.
- 6 4월 자산 폭등 — S&P 500 +10% / 나스닥 +15% (2024-04 이래 최대 월간). 유가 폭등에도 주가 상승 = 유동성의 힘.
- 7 인플레이 2 충격 — 1차(5/12 4월 CPI, 휘발유 직격) → 1.5차(6/12 5월 CPI) → 2차(7~9월 베센트 돈 풀기 6개월 lag) → 합산 폭발.

8 11/3 산수 — 가용 5,000~7,000억\$ vs 6개월 예상 지출 9,000억~1.2조\$ = 부족분. 8월부터 못 뿌릴 수도.

9 환율 1,460원대 — 1년 평균 이하 + 매달 분할 환전. 강사 원칙 진화: 3년 평균(2019) → 1년 평균(최근) → 1년 평균 + 매달 분할(지금).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6-05-11)

TGA 9,750억\$ → 6,800억\$ (2025-11 정점 → 2026-04 초, 약 2,600억\$ 살포)

강사 인용. 2025-07~08 2,700억\$ (낮은 수준) → 가을 약 7,000억\$ 흡수로 2025-11 정점 9,750억\$ 도달. 2026-02 9,400억\$ → 2026-04 초 6,800억\$ (약 -2,600억\$ = 4,000조 원 살포). 원래 5월부터 풀기로 했지만 이란 전쟁 변수로 두 달 당김. 4/15 세금일 +3,270억\$ 일시 회복 후 다시 하락 — "수도꼭지 안 잠그고 욕조에 물 받는 격".

이란 전쟁 + Brent 73→126\$ (4년 최고) — 베센트 8개월 탄약 → 6개월 압축

강사 인용. 2026-02-28 미-이란 전쟁 시작. 3월 초 Brent 118\$, 4/22 트럼프 무기한 휴전 선언, 4/30 Brent 126\$ (4년 최고). 베센트 입장에서 이란 전쟁으로 투심 악화 시 정작 5월 돈 풀어도 효과 없을 위험 → 3월부터 미리 살포. 8개월 탄약이 6개월로 압축됨.

유동성 합산 7,000억\$ (TGA 4,000억 + 연준 3,000억) — 글로벌 금융위기 1차 QE 1조\$에 근접

강사 인용. 연준 12~4월 5개월간 단기 국채 매입 400억\$/월 + MBS 재투자 150~200억\$/월 = 3,000억\$. TGA 2~4월 4,000억\$. 합산 7,000억\$. 결과 — 4월 S&P 500 +10% (2025-11 이래 최대), 나스닥 +15% (2024-04 이래 최대). 유가 폭등에도 주가 상승 = 완전히 유동성의 힘. 그러나 미리 펀치 다 쓴 만큼 그 뒤 펀치가 없다.

11/3 산수 — 가용 5,000~7,000억\$ vs 예상 지출 9,000억~1.2조\$ (부족분 발생)

강사 인용. 4/22 보유 탄약 1조 70억\$ (-) 최소 유지 잔고 3,000~5,000억\$ = 가용 5,000~7,000억\$. 6개월 예상 지출 월 1,500~2,000억\$ × 6 = 9,000억~1.2조\$. 산수 안 맞음 — 8월부터 못 뿌릴 수도. ON RRP 에어백도 2022 2.4조\$ → 2024 거의 0으로 사라짐 → 충격이 시장에 직접 전달. 베센트 탄약 효과 예전보다 2~3배 강하지만, 9~10월 진퇴양난 — 더 풀면 인플레이 폭발, 자제하면 주가 하락 → 어느 길로 가도 트럼프에 나뉨.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- 01 **환율 1년 평균 이하 + 매달 분할 환전** — 강사 명시. 3년 평균(1,370원) 도달 어려움. 현재 1,472.5원 / 1년 평균 1,430원 / 1년 범위 1,347~1,538원. 완벽한 시점은 아니나 변동성 큰 6개월이 시작됐으니 분할 환전 권고.
- 02 **땃 (단단) = 단기 미국채 SGOV** — 강사 명시. 어느 길로 가도 견딘다. 11/3 선거 이후가 진짜 위기 — 지금부터 6개월 자산 점검 시점.
- 03 **똥 (신중) = AI 인프라 + 에너지·원자재 + 선택적 노출 / 멍청(피해야 할 자산) = 원화 예금 + 장기 국채 + 광역 지수 ETF** — 강사 명시.

베센트 8개월 탄약 → 이란 전쟁으로 6개월 압축

TGA 잔고 2025-11 9,750억\$ → 2026-04 6,800억\$ (-2,600억\$ 살포)

연준 협공 12~4월 3,000억\$ (단기 국채 + MBS)

합산 7,000억\$ 유동성 — GFC 1차 QE 1조\$ 근접

4월 자산 폭등 (S&P +10% / 나스닥 +15%) — 유동성 힘

인플레 2 충격 — 1차 5/12 + 1.5차 6/12 + 2차 7~9월 (베센트 lag)

11/3 산수 — 가용 5,000~7,000억\$ vs 필요 9,000억~1.2조\$

ON RRP 에어백 사라짐 (2022 2.4조\$ → 0)

Fanding @kpunch · qna_part4_04